

생우유 자체생산 시작한 캄보디아

호치민사무소

미국표준 준수하며 고품질 우유 생산하는 무무농장

- 유(乳)우종으로 유명한 홀스타인젓소는 캄보디아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종이였으나, 최근 일부 농장에서 사육을 시작했다. 캄보디아 Arey Ksat마을에 소재한 '무무농장'은 매일 300마리에 달하는 소에서 나오는 신선한 우유를 냉각과 살균과정을 거쳐 무균우유를 생산해낸다. 프놈펜 포스트에 따르면 이 농장은 맛, 품질, 위생에 있어 미국 표준을 준수하며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학교 견학프로그램까지 실시하는 등 고품질의 농장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 캄보디아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홍콩, 베트남 등으로 우유를 수출하였으나, 현재 대부분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유수입과 관련된 공식통계는 없지만, Vinamilk社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캄보디아의 전체 유제품 수입량은 4천만 달러(447억 7천만 원) 이상이며, 현대식 마트에서 판매되는 거의 모든 유제품이 수입품으로 태국,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산이 경쟁하고 있다.
- 최근 현지 농장주와 협력형태로 직접 생산을 추진하는 해외기업이 생겨나는 추세로 무무농장 외에도 캄보디아 내에서 위생시설을 갖춘 자체 생우유 생산업체의 증가가 예상된다. 한편, 베트남계 유제품 회사인 Vinamilk社가 2016년에 캄보디아 내 자체 공장을 설립, 연간 1,900만 리터의 생우유 및 기타 유제품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캄보디아 농림부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이스라엘 투자자들이 캄보디아 농장을 사들이는 등 관련업계의 움직임이 활발한 추세이다.

우유소비량 증가에 미리 대처해야

- 캄보디아 생우유시장은 현지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는 냉장·물류 인프라 부족, 무균살균시설 미비 등의 원인으로 수입의존도가 높다. 우유 소비와 관련한 FAO통계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캄보디아의 일인당 우유 소비량은 2.25kg이며, 인접국인 태국과 베트남의 통계가 각각 17kg, 8.37kg 정도임을 고려할 때 동남아시아 국가 일인당 우유소비량 평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최근 들어 소득 수준의 증가 및 건강식품 선호 추세로 인하여 완전식품인 우유에 대한 소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 현재까지 우리나라 생우유의 캄보디아 시장진출은 검역상의 문제로 수출이 어려웠지만 앞으로 현지 자체생산의 품질기준이 향상되고 수입의존도가 감소되는 경우에 대한 대비책 및 품질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프놈펜 슈퍼마켓 우유매대